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재공모 끝 명품공원되나

서구 매월동·북구 장등동·광산구 삼거동 막판 경쟁...현장 조사 진행 광주시, 6월 중 최종 후보지 선정...소각시설 지하화·지상에 공원 조성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시가 건립하려는 '자원회수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장)'이 한 차례 좌절 끝에 다시 한번 건립 절차를 밟으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 레저·복지시설 등을 갖춘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구상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한 상태로, 후보지 3곳이 마지막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 최종 1곳을 선정해 전라 영향평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입지로 공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 등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애초 후보지 공모에는 모두 7곳이 지원했으나 1곳은 철회했으며 나머지 3곳은 주민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2030년 준공 목표로 3240억원을 들여 자연녹지 기준 6만6000㎡ 부지에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1일 처리량은 중량제 폐기물·음식물·재활용 잔재물·대형 폐기물 등 650톤 규모다.

광주는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곳으로,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대비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시는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화와 함께 다양한 레저·복지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소각장 유치 지역에는 600억~800억원 규모의 편의시설과 주민숙원사업(300억원), 자치교부금(2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적 혜택도 제공한다. 또 운영 시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1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금으로 조성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자원회수시설 첫 공모에 나섰으나, 공모를 신청한 6곳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립나주숲체원서 한국특산 식물표본전시회

전남산림자원연구소 24일까지 구상나무·고란초 등 23점 전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24일까지 5일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한국특산 식물표본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선 2023년 광양시와 공동으로 백운산 일원에서 14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식물표본 481종 가운데 구상나무, 삼도하수오, 고란초 등 한국 특산식물 23점을 선보인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21년 국립나주숲체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담양 가마골 식물표본전시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식물표본전시회다. 국립나주숲체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광양 백운산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의 아름다움을 알리도록 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산식물이란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육하는 고

유식물이다. 특히 과거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종이 환경요인에 의해 분포지역이 좁아졌거나, 새로운 종분화에 의해 형성된 신고유종으로, 개체수가 축소되거나 소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세한 환경요인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최근 산림청에서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등 수목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남지역 산림자원 탐사를 통해 꾸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 바이오물질 추출실을 운영해 비자나나무 등 백나무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과 꾸지뽀나무를 활용한 간 기능성 개선 식품 개발, 생달나무를 활용한 향기제품 개발 등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산림소득 향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향교서 '전통 성년식' 성년의 날인 20일 광주 남구 광주향교에서 열린 성년식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성년의식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달의 정원' 월봉서원으로 떠나는 광주 나들이

광주시,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춘철현·용아생가 등 9개 선정

광주시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새 출발에 맞춰 다양한 국가 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선정한 '우리 고장 국가 유산 활용사업'에 광주에선 9개가 포함됐다.

사업은 ▲돌의 기억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러라 ▲광산 사계 몽(夢)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 스토리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인 더 시티 등이다.

특히 광산구 월봉서원은 전국 10대 대표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부터 3년간 사업 운영과 홍보 활동 등을 지원받아 '선비의 하루', '살롱 드 월봉', '꼬마 철학자 상상 학교' 등 프로그램으로 조선 성리학과 서원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춘철현과 광주읍성을 배경으로 한 돌의 기억, 용아생가·김봉호 가옥·장덕동 근대 한옥에서 이뤄지는 광산 사계 몽 등도 각각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우리 고장 국가 유산 활용사업은 지역별 국가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마다 국가유산청 공모를 거쳐 자치구별로 진행된다.

송영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는 선사시대 신창동 마한유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고장 국가 유산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과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삼성전자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0개사 사업비 최대 1억원 제조 혁신 노하우 전수도

전남도가 삼성전자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혁신을 위해 '협력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나선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초 단계 사업장을 전년도 5개 사에서 20개 사로 대폭 늘렸으며, 전남도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업비의 30%씩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부담(40%)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최대 1억원이다.

삼성 현지 제조 전문가 3명이 지원 기업에 8~10주간 상주 근무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한다.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 등 분야별 제조 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그와 연동된 자동화 장비, 제이거, 센서 등을 지원한다.

또 삼성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교육, 유지보수,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고도화 도약 컨설팅까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종합 육성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오는 22일 전남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안에 전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생산, 영업 등 전반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로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요소"라며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융합해 디지털 제조 혁신을 이루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 15개월 연속 증가

2억 3400만달러...전년비 12.6% ↑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이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은 2억 34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품목별로는 김(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21.8%), 미역(33.5%), 과일주스(55.7%), 고추

장(58.2%)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일본(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10.8%), 미국(50.1%), 대만(11.5%), 러시아(15.3%)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5.3%), 베트남(2.7%) 등은 감소했다.

전남도는 하반기에도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수출 특화품목 육성에 나선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월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미 2023년 6월 기준))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등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베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